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Young-Ju Jee¹⁾, Yoon-Ji Kim²⁾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지영주¹⁾, 김윤지²⁾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160 female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dentify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WIN 21.0 progra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sexual knowledge was negative related to sexual attitude($r=-0.204$, $p=.01$). The finding showed the higher sexual knowledge leads to conservative sexual attitude.

Keywords: Female Nursing Student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요 약

본 연구는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60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피어슨 상관계수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성지식은 성태도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r=-0.204$, $p=.01$), 이는 성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태도가 보수적이 됨을 알 수 있다.

Received(June 7, 2020), Review Result(1st: July 28, 2020, 2nd: September 17, 2020), Accepted(October 28, 2020)

1) (Assistant Professor) 51767 Dept. of Nursing, Kyungnam Univ.,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email: jeeyoungju@kyungnam.ac.kr

2) (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47230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54, Yangji-ro,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yoonji@dit.ac.kr

핵심어: 여자 간호대학생,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료되어 신체적인 성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형성되는 대학생 시기로 Erikson의 발달단계에서 볼 때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청년 후기에 해당된다[1]. 또한 대학생 시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로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인식된다[2].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입시에서 벗어나 성 개방화 추세변화와 자유로운 이성교제로 성에 대한 지식, 태도와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행동에 영향을 받아 여러 갈등을 겪기도 한다[3]. 따라서 자유로운 생활로 성인기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성건강과 생식건강은 20세기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로 지목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관리자의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3].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습득한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가치관 등은 앞으로 임상에서 성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할 경우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 이들을 어떻게 돕고 지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와 성경험 등의 변수 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한 연구[4-6]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7][8]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이경숙[9]과 최혜정, 강진아와 김연희의 연구[10]에 따르면 보건계열과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타전공학생과 비교하여 많으며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습득으로 성지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냄으로써, 여자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자 간호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간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B광역시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analysis program 3.1을 이용하였으며, 상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30,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였을 때 111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0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기본인적사항(연령, 학년, 종교, 거주형태, 평균용돈,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과 성관련 특성(이성교제 경험, 성관계 경험, 성교육 경험, 부모님의 성태도)를 포함한다.

조사대상의 성지식은 전경숙[11]이 개발한 성지식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 .89이었다.

성태도는 호선민[12]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성태도 측정도구를 우근희[13]가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태도의 점수는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 .80이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조호윤 등[1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 중

여학생 대상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성행위, 성행위책임감, 생식기 건강관리, 성병예방, 생식기 위생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1.70 ± 6.02 세이며, 1학년 33명(20.6%), 2학년 80명(50.0%), 3학년 42명(26.3%), 4학년 5명(3.1%)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25명(15.6%), '천주교' 19명(11.9%), '불교' 24명(11.9%), '무교' 90명(56.3%), '기타' 2명(1.3%)이었고,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의 집' 85명(50.0%), '기숙사' 36명(22.5%), '자취' 37명(23.1%), '기타' 7명(4.4%)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용돈은 '10만원 미만' 17명(10.6%), '10-20만원' 21명(13.1%), '20-30만원' 26명(16.3%), '30-40만원' 44명(27.5%), '40만원 이상' 52명(32.5%)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성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이성교제 경험에 관하여서는 '현재 교제 중' 68명(42.5%), '과거 있으나 지금 없음' 57명(35.6%), '경험 없음' 35명(21.9%)이며, 부모님의 성태도에 관해서는 '개방적' 23명(14.4%), '보통' 88명(55.5%), '보수적' 49명(30.6%)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에 대하여 '있다' 70명(43.8%), '없다' 90명(56.3%)이었고, 성교육을 받은 경험에는 받은 적이 '있다' 155명(96.9%), '없다' 5명(3.1%)으로 나타났다.

여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7.17 ± 6.99 점,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56.76 ± 8.74 점이며, 성태도의 평균점수는 105.83 ± 13.53 점, 성지식의 평균점수는 15.49 ± 3.38 점, 생식건강증진행위의 평균점수는 63.33 ± 7.71 점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ange	Actual Range
Age			21.70±6.02	-	18-53
Grade	First grader	33(20.6)	2.18±0.76	1-4	1-4
	Second grader	80(50.0)			
	Third grader	42(26.3)			
	Fourth grader	5(3.1)			
Religion	Christian	25(15.6)	-	1-5	1-5
	Catholic	19(11.9)			
	Buddhism	24(11.9)			
	None	90(56.3)			
	Other	2(1.3)			
Type of residence	Parents' house	80(50.0)	-	1-4	1-4
	Dormitory	36(22.5)			
	To live alone	37(23.1)			
	Other	7(4.4)			
One month money	Less than 100,000 won	17(10.6)	3.58±1.34	1-5	1-5
	More than 100,000 won - less than 200,000 won	21(13.1)			
	More than 200,000 won - less than 300,000 won	26(16.3)			
	More than 300,000 won - less than 400,000 won	44(27.5)			
	More than 400,000 won	52(32.5)			

3.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지식 및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간의 상관관계에서 성지식과 성태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이는 성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태도가 보수적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2] 대상자의 성관련 특성

[Table 2] Sex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ctual Range
Experience of dating	Now dating	68(42.5)		1-3
	Past experiences, not now	57(35.6)		
	No experience	35(21.9)		
Experience of sexual relations	Yes	70(43.8)		1-2
	No	90(56.2)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Yes	155(96.9)		1-2
	No	5(3.1)		
Parents sex attitude	Open	23(14.4)	2.16±0.65	1-3
	Usually	88(55.0)		
	Conservative	49(30.6)		
Self Efficacy			37.17±6.99	20-50
Social support			56.76±8.74	31-75
Sexual Attitude			105.83±13.53	72-175
Sexual Knowledge			15.49±3.38	0-23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63.33±7.71	39-72

[표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of Subjects

(N=160)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p) r		
Sexual Knowledge	1		
Sexual Attitude	-0.204** 0.010	1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0.040 0.618	0.032 0.689	1

** $p \leq .001$

4. 논의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간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여자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지식의 평균점수는 15.4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윤선과 황혜남[15]의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성지식은 24.15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들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최혜정, 강진아, 김연희의 연구[10]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보다 성지식점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 성지식 점수에서 생식생리 등에 대한 점수는 높으나 성폭력, 피임 및 낙태 영역에 대한 지식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생식기에 대한 생리에 대한 지식은 높을 수 있으나 임신, 낙태, 성폭력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태도의 평균점수는 105.8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윤선과 황혜남[15]의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은 2.84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들이 3.02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성관계 경험에 있는 경우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온 정경숙[11]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성관계 경험에 따라서 성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평균점수는 63.3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윤선과 황혜남[15]에서 여자 대학생으로 3.41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들이 3.51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 있어서 평균 3.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의 경우 타계열 학생보다 교육과정 내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해 수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타계열 학생의 경우에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자의 성지식과 성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나 생식건강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공별로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성과 생식건강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여자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 상관관계에서 성지식은 성태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어 이는 성지식이 증가할수록 성태도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r=-0.204$, $p=.01$). 연구대상인 여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저학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성지식이 낮고 성태도가 보수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진다. 또한 성지식, 성태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식건강증진행위 도구가 성경험을 가정한 가운데 질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도구들을 사용하여, 성관계 경험팀과 비경험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여자 간호대학생에 국한된 연구이므로 전체 일반 여자 간호대학생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추후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1st edition, W. W. Norton, (1968)
- [2] J. C. Kim, Y. M. Baek, The effects of gender sensitive group counseling on college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9), Vol.10, No.1, pp.271-284, DOI: 10.15703/kjc.10.1.200903.271
- [3] http://www.unfpa.org/swp/2005/pdf/en_swp05.pdf, Jul 5 (2020)
- [4] M. O. Kim,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 Vol.14, No.8, pp.3876-3886, DOI: 10.5762/KAIS.2013.14.8.3876
- [5] G. H. Wo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1)
- [6] H. S. Lee, B. H. Jeong, Y. H. Lee, W. S. Seong, J. O. Ha, G. Y. Lee, M. K. Lee, S. H. Song, A study on the level of sex educati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llowa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Culture and Society, (2015), Vol.21, No.3, pp.231-252, DOI: 10.24159/joec.2015.21.3.231
- [7] M. S. Kim, Y. S. Eo, A study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5), Vol.21, No.2, pp.140-147, DOI: 10.14370/jewnr.2015.21.2.140
- [8] H. Y. Kim, E. J. Le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female students in college, Summer Conference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5), June 26; Seoul, Korea.
- [9] J. S. Lee, G. E. Lee, Knowledge, Attitudes, Experiences in Sex and Needs for Sex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03), Vol.16 No.2, pp.45-55.
- [10] H. J. Choi, J. A. Kang, Y. H. Kim, The Research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Woman Student - Oriented to Health and Non-health Group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12), Vol.13, No.2, pp.29-44, UCI: G704-002090.2012.13.2.009
- [11] G. S. Jeon, H. Y. Lee, S. J. Rhe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4), Vol.21, No.1, pp.45-68, UCI: G704-000885.2004.21.1.007

- [12]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Hany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9)
- [13] G. H. Wo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ngju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11)
- [14] H. Y. Jo, Y. H. Kim, H. M. Son,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2014), Vol.31, No.5, pp.29-43, DOI: 10.14367/kjhep.2014.31.5.29
- [15] Y. S. Kang, H. N. Hwang,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7), Vol.23, No.1, pp.9-17.